(2006.5.17, 서면보고자료, 경제정책비서관실)

한-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

2006. 5. 16(화)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-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한-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타결된 바, 동 내용을 보고드림.

1. 협상 타결 결과

□ 상품무역협정 모든 문안 최종합의 및 각국의 양허안 확정

o 10년내(2016.1.1까지) **품목수 및 교역액 기준 97%**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**상호 자유화**하는 높은 수준의 FTA 달성

o 주요 민감품목은 **초민감품목**으로 분류하여 양허제외, 장기 저율관세인하 등의 방식으로 보호

※ 태국을 제외한 9개국과 합의

□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원칙에도 합의

o **100개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합의**

o 아세안측의 피해 우려를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

- 심각한 산업 피해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및 5년 후 재검토 허용, 연례 개성공단제품의 수출입 정보 제공

o WTO 최혜국대우 원칙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외가공 형태를 채택
(한-EFTA FTA와 동일한 방식)

2. 협상 타결의 의의

□ 거대경제권과 최초로 FTA 타결

o 인구 5억의 아세안은 우리의 제5대 교역국(535억불), 제4대 수출국(274억불), 제3대 투자국(136억불)로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거대시장

- 대외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-아세안 FTA 체결로 대아세안 수출은 약 100억불, 무역흑자는 약 60억불 증가 예상

□ **중국,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아세안 시장에서 우위확보**의 계기 마련

o 중-아세안 FTA는 2005. 7월 발효하였으나, 다수 핵심품목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화 효과가 제한적

o 일본은 싱가폴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과는 아직 발효된 FTA가 없음

※ 일-말레이시아 FTA는 서명되었으나 미발효, 일-태국, 일-필리핀 FTA는 미서명

o 특히, **자동차 및 철강 등 핵심 공산품 분야**에서 **유리한 수준의 양허**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

□ 우리의 **초민감 농수산물에 대한 충분한 보호 확보**

o **쌀**은 물론 소고기, 닭고기, 마늘, 양파, 고추와 대부분의 과일, 그리고 주요 활어 및 냉동 어류에 대한 양허제외에 합의

o 그 밖에 민감 정도가 높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2016년에 현행관세의 20% 수준만 감축하는 선에서 합의 도출

□ 싱가폴, EFTA에 이어 **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"한국산" 인정** 및 해외판로 확보 지원에 성공

3. 후속 절차

□ **협정 당사국의 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국회비준동의 요청 추진**

o 국회 동의절차 등을 거쳐 아세안 사무국에 우리와 아세안중 1국의 비준서만 기탁되면 우선 발효

□ **서비스 및 투자분야 협상도 가능한 조기 타결을 목표로 추진**

/끝/